

## 중부독일 공항 기업체(Mitteldeutsche Airport Holding) – 역동적인 지역의 두 포탈

2000년 중부독일 공항 기업체가 설립된 이래 이는- 주 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차원에서도- 중부 독일의 정치, 행정 및 경제가 상호협력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중부 독일 공항간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국제적인 기업의 합리적인 유치 및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중요 지표가 된다.

2008년도에 이 기업체에는 총 96.892대의 항공기를 운항시켰으며 4,320,000명의 승객 및 442.750톤의 항공화물을 취급하였다. 총 970명의 직원 및 실습생들이 근무하고 있다. 중부독일 공항 주식회사 본부가 있는 지역에는 7천 여명이 각종 기업과 관청에 종사하고 있다.

### 한 손의 경영

자회사인 라이프찌히/할레 공항 주식회사(Flughafen Leipzig/Halle GmbH), 드레스덴 공항 주식회사(Flughafen Dresden GmbH), 포트그라운드 주식회사(PortGround GmbH) 및 이스턴에어카고 주식회사 (EasternAirCargo GmbH) 등과 함께 중부독일 공항 기업체는 두 공항의 인프라 구조를 경제적이며 고객을 생각하여 구축하였다. 한 손에서 나오는 전략이 이에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부독일 공항 기업체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콘트롤, 전략에 부합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시너지를 표출하였다.

### 합목적적인 발전

항공 운항 분야에서의 현저한 위치와 라이프찌히/할레 공항 및 드레스덴 공항을 이용하는 지역과 유럽 및 전세계의 경제중심지와 다양한 연결을 확고히 함으로써 작센 주와 작센-안할트 주의 사업성있는 견고한 인프라 구조 정책이 입증되었다.

동일한 길이의 라이프찌히/할레 공항 북부 인터콘티넨탈 활주로와 평행하여 3.600미터 길이의 남쪽 활주로가 2007년 7월에 완공되었고, 드레스덴 공항의 활주로도 역시 2007년도에 정비 및 연장 완료됨으로써, 두 공항은 미래 항공 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최상으로 완비하게 되었다. 이륙과 착륙간의 최소한 시간차 (Slots) – 유럽 공항에서의 일반 치 – 는 없다. 독일 연방 행정 재판소에서는 라이프찌히/할레 공항 건설에 대한 승인 판결과 함께 24시간 가동 가능한 국제 항공 화물 센터 건립에 관해서도 인정하였다. 2007년 6월에 통과된, 정기 여객기를 제외한 야간비행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보완계획 확정완결에 반대한 소송이 2008년 7월에 독일 연방 행정 재판소 라이프찌히에서 기각되었다.

## 주식보유 현황

작센 주 (Freistaat Sachsen)	76,64%
작센-안할트 주 (Land Sachsen-Anhalt)	18,54%
드레스덴 시 (Stadt Dresden)	2,52%
라이프찌히 시 (Stadt Leipzig)	2,10%
할레 시 (Stadt Halle)	0,20%

## 라이프찌히/할레 공항 주식회사 (Flughafen Leipzig/Halle GmbH)

중심 위치와 각종 수송 기관을 통합하는 장점:  
승객과 화물을 위해 우수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항



성장하는 유럽의 중심부에 소재하는 라이프찌히/할레 공항은 대륙의 중심지로서 국제 여객기 운항 및 화물 운송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24 시간 항공 운항, 각기 3,600 미터 길이의 평행활주로 시스템으로 연중 일기변화에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증하며, 이-착륙 시차의 충분한 확보와 항로, 도로 및 철로 (각종 수송 기관 통합성)와의 밀접한 연결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자유로운 수속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라이프찌히/할레 공항은 독일에서 매력적인 대체역할을 하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기 노선 항공사 뿐만 아니라, 이곳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할인항공사 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공항 남쪽의 화물구역에 새로운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경영진

디익 내터(Dierk Näther)

주식보유자

중부독일 공항 주식회사 (Mitteldeutsche Flughafen AG)	94,00%
작센 주(Freistaat Sachsen)	5,50%
북부작센 지역구 (Landkreis Nordsachsen)	0,25%
슈코이디츠 시(Stadt Schkeuditz)	0,25%

## 드레스덴 공항 주식회사(Flughafen Dresden GmbH)

작센의 하이테크와 역사의 관문 :  
성장하는 업종을 위한 인프라



고속도로, 도로 및 에스반 전동차와 아주 잘 연결되어 있기에 본 공항은 사업 출장자들과 휴가 여행객들에게 고루 이용되고 있다. 공항 주변에는 유명한 반도체 및 제약회사 등이 소재 하고 있으며, 항공, 우주산업 관련 업체들은 공항 내에서 직접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화물운송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드레스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우엔 교회(Frauenkirche)와 그뤼네스 게뵐베(Gruenes Gewoelbe)의 보수가 완료되어 입장이 가능해 졌고, 국제회의의 중심지로서 이 도시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되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이 유럽연합에 가입되면서 인구이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본 공항이 3 개국(독일, 폴란드, 체코)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공항의 잠재력을 개방시키고 있다.

### 경영진

미샤엘 후페 박사(Dr. Michael Hupe)

### 주식보유자

중부독일 공항 주식회사 (Mitteldeutsche Flughafen AG)	93,996%
작센 주(Freistaat Sachsen)	4,8366%
마이센 지역구(Landkreis Meißen)	0,5837%
바우첸 지역구(Landkreis Bautzen)	0,5837%

## 포트그라운드 주식회사(PortGround GmbH)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도착부터 스타트까지. 여객 또는 화물. 영국항공(British Airways)에서 독일 루프트한자 (Lufthansa)를 거쳐 DHL이나 에어프랑스에 이르기 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항공사들은 중부독일의 라이프찌히/할레 및 드레스덴 공항에서의 수화물 핸들링에 있어 포트그라운드를 신뢰하고 있다. 이는 본 회사가 2001년 포트그라운드 설립 이래 최상의 품질, 광범위한 노하우 그리고 항시 이용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30 여명의 직원들이 두 공항에서 주 7일 매일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도록 일하고 있다. 수대의 최신 차량과 특수장비 들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에 가동되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와 연계된 작업을 신속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핸들링하고 있다.

항공화물과의 연관성이 증가됨에 따라 수화물의 핸들링 관련 사업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부터 포트그라운드 주식회사는 이 분야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7년 7월 새로 건립된 월드 카고 센터로 이전하면서 적재창고 활용 면적이 이미 3배로 증폭되었다. DHL 또한 수화물의 육지 핸들링에 대한 노하우를 처음부터 활용하면서, 자체 직원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항공화물 중심지인 라이프찌히/할레 에서 포트그라운드를 통하여 4개월 과정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첫 단계를 받도록 하였다. 확장된 교육 과정은 특히 2008년 12월에 체결된 루프트한자 카고와 중부독일 공항 홀딩 간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하여도 지속될 수 있었다.

### 경영진

베티나 강호퍼(Bettina Ganghofer)

### 주식보유자

중부독일 공항 주식회사 (Mitteldeutsche Flughafen AG)	100,00%
---	---------

## 이스턴 에어카고 주식회사(EasternAirCargo GmbH)

동부권 비즈니스을 위한 유럽의 수화물 전문가



본사는 라이프찌히(Leipzig)에 소재하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이스턴 에어카고 주식회사(EasternAirCargo GmbH)는 다양한 항공사를 상대로 세일즈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국 및 독립 자치구에 소재하는 100 여 개소의 업무처를 연결하여 화물운송 및 로지스틱 분야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국내 및 서유럽 지역의 지선운반 서비스와 러시아의 파트너 회사들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트럭 라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고 있다. 전 유럽에 퍼져 있는 수화물 접수처 망을 통하여 대량의 수화물을 경제적이면서 저비용으로 콘트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는 자체 운송 라이선스를 통하여 수화물의 원활한 연계 운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턴 에어카고 (EasternAir Cargo GmbH)는 몇년 사이에 동부권 전문가로 명성을 굳히게 되었다.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 빈틈없는 운송 처리 콘트롤, 배달 증명 및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신속한 수화물 사전 통보 등에서 성장하는 카고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 경영진

슈테판 블랑크(Stephan Blank)

### 주식보유자

중부독일 공항 주식회사 (Mitteldeutsche Flughafen AG)	100,00%
---	---------